

### 사회복지예산 가파르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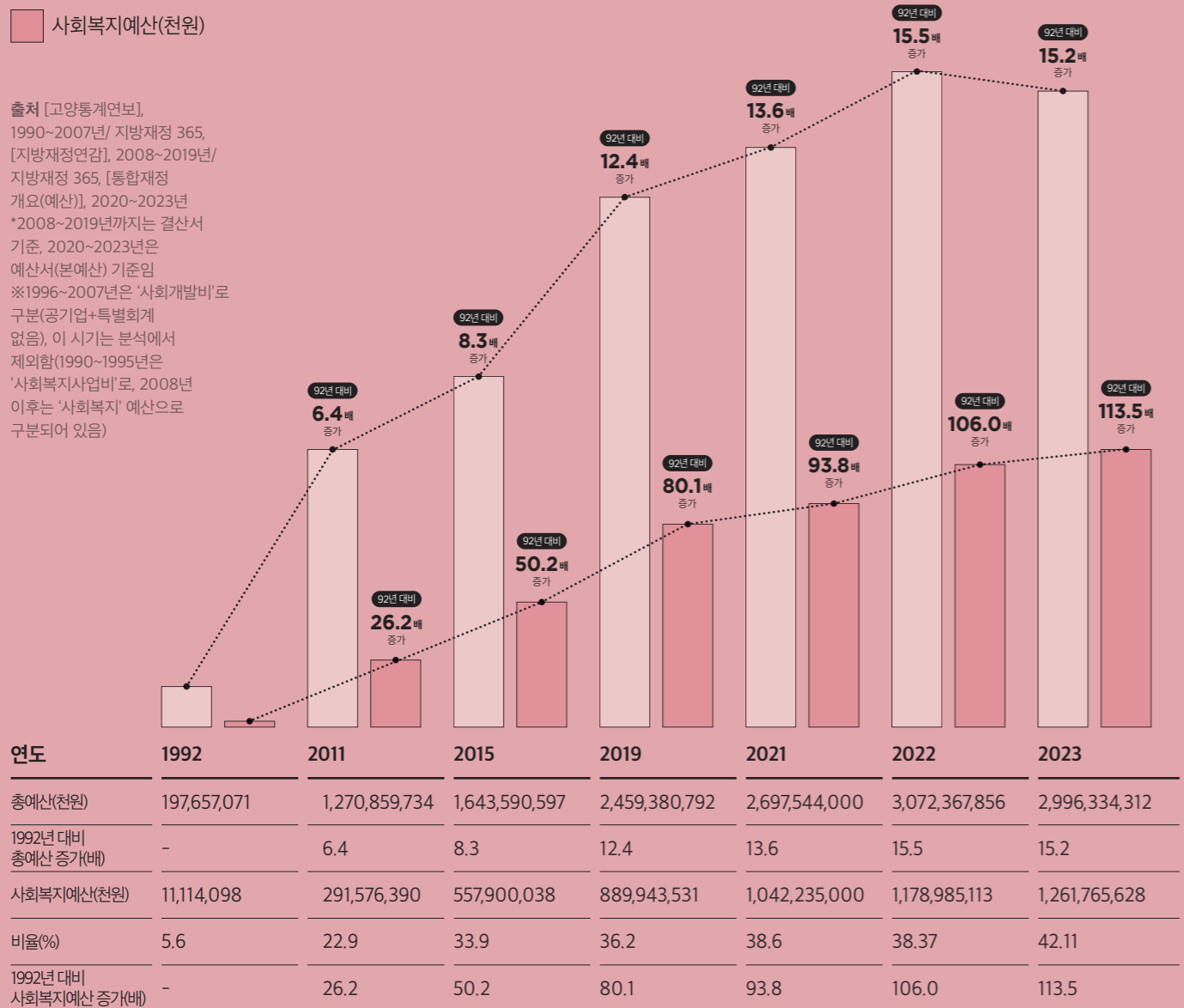
1992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고양시 복지 예산은 크게 증가했다. 2023년 고양시 전체 예산은 2조 9,963억 원으로 1992년 전체 예산 1,976억에 비해 15.2배 증가하였다. 사회복지 예산은 1992년 111억(사회복지사업비)에서 2021년 1조 2,618억으로 약 113.5배 증가하여 고양시 전체 예산 증가율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늘어난 복지예산만큼 사업수행기관,

대상, 복지사업도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복지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복지예산의 가파른 증가에서 알 수 있듯이 고양시는 복지수요가 많은 도시다. 고양시 전체 인구에서 미취학 아동, 초·중·고교생, 청년 인구의 비율이 감소하고 중장년 인구와 노인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3년 1월 노인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5.2%로 고

## 고양특례시 사회복지 예산 변화

총예산(천원)  
사회복지예산(천원)

출처 [고양통계연보], 1990~2007년/ 지방재정 365, [지방재정연감], 2008~2019년/ 지방재정 365, [통합재정 개요(예산)], 2020~2023년 \*2008~2019년까지는 결산서 기준, 2020~2023년은 예산서(본예산) 기준임 ※1996~2007년은 '사회개발비'로 구분(공기업+특별회계 없음), 이 시기는 분석에서 제외함(1990~1995년은 '사회복지사업비'로, 2008년 이후는 '사회복지' 예산으로 구분되어 있음)



령사회에 이미 진입했고 2028년 22.3%로 초고령사회로 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2021년 경기통계연보에 따르면 고양시 복지대상자의 수가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증가하고 있는 복지수요에 대응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 체계적인 사회복지정책 기획... 시민만족도 향상 기대

고양시민복지재단은 체계적인 사회복지 정책

을 기획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전문조직이다. 시민들의 복지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복지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시민복지에 대한 고양시의 책임과 역할은 확대되었지만, 증가된 복지예산과 서비스 제공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조직은 미비한 현실이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사회복지 예산 배분에 대한 기준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파편화·분절화·중복·누락 등의 문제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맞춤형 복지 통합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부족한 공공 가용 자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자원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공과 민간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복지 욕구에 대응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흩어져있는 민간자원의 효과적인 발굴과 배분시스템 확립도 중요한 과제다.

재단법인 형태의 복지플랫폼인 고양시민복지재단을 설립하면 복지수요 변화에 따른 능동적인 정책수립이 가능하고, 공공조직보다는 유연하게 민간분야와 소통할 수 있어 시민들의 복지서비스 만족도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외부 필진의 기고문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